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대학의 산학 협력, 기술 인력 양성의 효율성 제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정부 부처간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 등, 많은 것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말 안한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뜻이 큼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평가도 하고 조언도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감 가는 만큼 공유하고 힘을 모아 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동안 속이 많이 탔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하자고 약속하고 추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조금했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미흡하다고 하겠지만 이만한 결과에 대해 저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손질하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낙관과 비관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고, 열심히 하자는 주변 분위기가 모아졌을 때, 도전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마음을 모으면 성공의 절반이 됩니다

마음을 모으면 성공의 절반이 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나가고, 자신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개별적인 분야에서 한두 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양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 과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 실업, 고학력 실업 함께 해소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합시다. 연구개발은 연구소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실제 경험을 보면, 많은 성공 개발이 산업 현장에서 생산 라인 속에서 연구개발 활동에서 이뤄지고, 이것이 중요한 발전 동력입니다. 좀 더 인력 양성 개념에 폭넓게 현장 기술 인력 양성까지 포괄 양성해야 하고, 성과와 효율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자연스런 그렇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대학과 기업 협력체제가 이것 때문 소홀 되지 않도록 협력체제가 더 바뀝니다.(주-산학 협력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임) 대학구조조정은 병행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바쁜 것은 대학과 기업간의 협력입니다. 이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외 모범 사례를 확산하면서 고유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목표는 대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이 잘 되도록 잘 개발합시다. 이와 같은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개혁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경쟁을 도입해서 좀 더 개방체제로 가야 합니다. 인력 양성문제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지방기업 인력 육성,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관계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빠르게 준비해서 보고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대학 총장들도 모시고 해서 보고를 적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대학과 지방에 대해 말했는데 기술 개발, 선택과 집중, 기술혁신도 중요한데 결과

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지역 간의 기술격차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쏟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연구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도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개발 투자자원에 대해 민간부분도 있고 정부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예산 증가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많은 기대를 여기에 모두 집중하면 역량이 잘못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투자비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하면, 또 다른 연구를 해서 효율 높여 나갑시다. 국민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2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도 분야인 연구 분야에서는 효율성 3배, 4배 높여야 하고, 그 핵심 분야는 10배정도를 올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성 향상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역할과 민간 기업역할,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에 대해 뭔가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차세대 성장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산업과 부품 소재 개발, 공정 혁신 이런 분야에서 전통산업의 첨단화도 또 하나의 성장전략입니다. 자칫 이것이 소홀 되지 않도록 특별 유념해야 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신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하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 산업은 그냥 여전히 성장 동력으로 존재합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문화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따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그 부분이 전체 비중이 큰 비중인데, 그것이 중요한데 문화부도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회의 문화 역량

이 소프트웨어를 창출하고,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문화적 품위, 삶의 질을 문화 산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생산력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부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기업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숙제입니다. 대선 때 직접 지원은 줄이고 간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모범 답안을 주었는데, 직접 지원은 줄이거나 없애고 간접 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투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다고 했고, 지금까지 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나 산업에 인프라를 제공해서 기업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촉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알맞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 이 부분도 속단은 아닌데 이 부분에 각별히 염두에 두고 연구 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부처 간에 갈등이 있고 영역 다툼이 있어서, 성장산업을 내놓지 못하는데 별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부처 간에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고 중요하지만 상호 경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분담하고 경쟁하고, 그러나 정부와 부처 간에 경쟁은 관련 사업 분야에 부담을 주고 충돌을 일으켜서 비효율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통부와 산자부에서 각기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비효율 발생하면 문제 삼고 하는 사고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 산자부가 보고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산자부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법과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

를 총괄하는 부처에서 주관하면서 부처별 투자 유치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프라 확충문제는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작업한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기술위원회는 하는 일이 다르지만 상호간 정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상호 공유가 중요합니다. 각 부처 세부 계획도 마련되고 부처 간에 정책 마련되어야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또,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예산도 박차를 가해 주고, 세부적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을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하나씩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보고회까지 수고했는데 쉬라는 말을 못하고 더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계획이 서면 다음에 계속해서 안정된 토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